

2022 LEADERS FORUM 속기록

일자	2022.2.22.(화) 13시~18시
장소	102관 3층 대강당
방식	현장 및 온라인 ZOOM

1부

(진행자)

애국가 제창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준기 교학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재범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환 안성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교성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찬희 교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중근 서울캠퍼스 학생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신재 안성캠퍼스 교합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대표로 서울캠퍼스 배성호 비상대책위원장, 안성캠퍼스 김정현 학생회장과 자치기구 대표 1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상규 총장님께서 환영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총장 박상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규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학생회장 여러분들도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제가 총장에 취임한 지 세 번째로 리더스 포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우리 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오미크론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세 번째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리더스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잠깐 아쉬운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두 번의 리더스 포럼에서처럼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학 현안들과 관련돼있는 회의를 참석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못 간다고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부가 끝날 때즈음엔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2부 내용은 우리 총장단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활동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팔로우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대학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부총장님이 자세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도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 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구성원들께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력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의 생존 이슈가 상당히 거세게 대학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은 서울과 안성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우리 대학도 점차 다가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교육부 회의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의 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대학의 예산이라든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동의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같은 경우도 정원 감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체 대학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력인구가 너무 작아져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나 정부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고 우리 대학들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저희 대학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총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지난 2년동안 우리 대학은 비교적 여러 가지 성과가 났다고 자신을 합니다. 각종 평가에서도 큰 성과를 냈고, 특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 중심 대학의 지표로 삼고 있는 BK 21이라든지, 또 연구비 수주가 이제는 당당하게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써의 어떤 위상을 갖게 됐다는 것이 지난 2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공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업단인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사업들이 크게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리 중앙대학교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의 위상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 3년동안 저희가 광명시에다가 광명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이 완공이 돼서 다음 주에 개원을 합니다. 3월 2일에 개원을 합니다. 700베드 정도구요. 이제 흑석동에 있는 흑석병원과 합쳐서 1500베드 정도가 돼서 규모상으로도 한 10위 정도 하는 그런 대형 병원을 갖게 됐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대학의 의과 대학이나 의료원의 위상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바이오 연구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광명병원 개원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전 질의 내용도 봤지만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중에서 공간 문제나 환경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전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음교 건물 주의에 108관이라고 다른 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큰 건물은 아니지만 일단 그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조금씩은 우리가 후속 사업인 205관이라든지, 회람관 건축 사업같은 것을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게 흑석동 캠퍼스같은 경우는 310관이 평수가 한 2만5천평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000억 정도 건축비가 들었습니다. 안에 기자재 넣고 이런 거 다 합치면 1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도서관 뒤에 있는 205관을 짓게 되면 1만5천평정도를 짓게 되는데 건축비가 거의 배로 올라서 최소 1500억 정도가 들어간다 합니다. 저희가 더욱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개선해야 하는 환경 이슈가 있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법인과 잘 상의해서 어떻게 구축할지 (마이크 상태 불량)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예술 대학이라든지 일부 공과 대학같은 경우는 실기, 실습 수업을 많이 했지만, 수업을 1학기에는 많이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하려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3월 중순에서 말정도면 오미크론이 앤터믹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구요.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20학번, 아까 보니까 온라인에

20학번 우리 학생회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20학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뭐 3년째 비대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 지식의 전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는 의미의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워도 이번 학기에는 대면을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비대면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회장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 인사말은 이 정도로 줄이고 우리 부총장님들과 기획처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장님들과 우리 대학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준기 교학 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학부총장 백준기)

아 네 안녕하세요 교학부총장 백준기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학생 리더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학생들 환영을 합니다. 저는 교학부 총장으로서 뭐 쉽게 교무와 학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과의 자리라서 교수님 부분은 빼고 학사 부분하고 우리 그 중앙대학교가 자랑하는 혁신적인 AI 학습 지원 시스템인 e-Advisor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2022년도 1학기 대면 수업 운영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3, 4학년들은 물론 뭐 대면 강의를 해 봤었고 1, 2학년들 신입생과 2학년은 아직 중앙대학교에서 본격적인 대면 강의를 못 해봤는데 1학기가 되면서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이 되니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혼란도 생길 수 있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강의에 대한 지침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페이지에 요약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교수건 학생이건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소속 대학에 통보를 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소속 대학에서는 통보를 받게 되면 어 확진자의 인적 사항 발생 경위 동선 파악 등을 해서 이 내용을 소속 대학은 건강센터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조치하기 위해서 교육부 지침으로 어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요, 본인의 코로나 19 유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학생 교원 동일하게 일단 등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으로 통보를 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동시에 담당 교수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당일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코로나 19를 검사를 받거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두 줄은 아까 요약과 동일하니까 지나가고요. 세 번째 칸 수업 참여자 코로나 19 대응 관리에 대해서 수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안내를 하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대면 이론에 참여했던 수업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취합하는 건강 센터에 보고하게 되고요. 해당 과목은 역학 조사를 완료한 후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이 확진 시에는 기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휴강을 했다 보강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권 보호 조치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조금 플로우 차트로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교원 학생 모두 소속 대학 방역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고 소속 대학은 보건소와 의료 기관, 자가진단 키트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 증상이 소실되면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측에 이제 양성 나왔을 경우에는 PCR 검사를 참여한 다음에 소속 대학에 통보를 하고 건강센터에 보고를 해서 이제까지 설명 드린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교원의 경우에는 조치 사항이 소속 대학에 연락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한 다음에 귀가해서 검사 결과를 소속 대학으로 회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좀 더 학생들한테 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이제 학생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 사항으로는 소속 대학에 연락하고 증상을 보고한 후에 교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소속 대학으로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받거나 확진이 되거나 격리자가 될 경우 출석 인정을 해 드린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강의실을 소독하고 수업 참여자들의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접촉 시간이라든지 환기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격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어 참고로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 기간은 확진자, 접촉자,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감염 예방을 위한 수업 운영 관리를 위해서 좌석 있는 강의실은 한 칸 띄우기를 실시를 하고요. 좌석 없는 강의실은 4제곱미터당 한 명을 수용을 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은 4제곱미터당 1명 혹은 개별 연습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은 강의실 면적 2제곱미터당 한 명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어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그 참고로 방역 스티커를 부착해야 건물 출입이 가능하고요. 수업 전에 검역 스티커 부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손 소독과 전원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가급적 환기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격리 공간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방역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어 CAU e-Advis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U e-Advisor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성장에 가치를 두고 대학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AI 교육 지원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e-Advisor, Rainbow, Chatbot을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는 일단 그 e-Adviso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단계적 구축을 통해서 AI 기반 전주기 학생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cau어드바이저와 챗봇 레인보우 시스템 연계를 통

해서 학생 역량 증진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경과를 간략히 보시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3단계로 총 30억이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비로 구축하게 되었는데, 결과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cau 어드바이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 어드바이저는 6개의 서비스와 2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포탈을 통해 쉽게 e어드바이저에 접근 가능하고요, e 어드바이저의 6대 서비스는 첫 번째, 계획을 짜는 planning, learning support, learning analytics, portfolio, e notice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적인 역할을 하는 chatbot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시뮬레이션한다던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정리도 할 수 있고요, 공지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손쉽게 텍스트 기반으로 질의응답받을 수 있는 챗봇이 동작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습자 학습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합 학습 분석을 우이해서 몰입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몰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몰입도가 우측에 보듯이 여러 가지 지표상 발전되고 있는지 차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레인보우 가치관 설정 기능을 추가하면, 자기의 목표를 결정하면, 자기 목표를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졸업하고 취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job을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 기능이 있습니다.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한데요, 내가 한 질문과 다른 학생들의 질문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한 어려움과 질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단과대학별로 특화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간호대학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실습활동이 있고, 이 실습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십자간호 대학에 특화된 지식 범위를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챗봇과 연계하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학기 대면 학사 가이드라인과 새롭게 구축된 e어드바이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주제별 연구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총장 주제별)

네 안녕하세요. 연구부총장 화학부 교수 주제별 교수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난 2년 동안 중앙대학교가 연구기반 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나 mit나 스탠퍼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던 이유는, 위 대학들이 굉장히 우수한 연구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생들은 모르시지만, 중앙대학교가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비 수주라든가, 논문 실적이 저희 대학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고민해야 한는지 잠시 고민해봅시다.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저희 중앙대학교의 연구경쟁력이 어떻게 되었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며, 확고한 연구기반의 근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sci논문의 실적과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그리고 대학원 현황 그리고 bk사업현황, 그리고 학부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학술정보원, 여러 가지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 5년간 저희 중앙대학교의 국제 학술 논문지 출간 실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 저희 학교에서 출간한 sci논문은 2612편으로 실제로 명실상부 다른 대학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른 추세이고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논문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여러 대학들이 논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양질의 sci논문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sci논문을 평가할 때 q1 q2 q3 q4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의 논문 실적은 지속적으로 q1q2가 증가하고 있고 q3q4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Q1, Q2는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4는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논문을 해나갈수록 구성원이 창출해나가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보면 실제로 저희가 Q1, Q2 상위 20% 논문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가지 SCI 논문이라든가 창업 또는 기술 이전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총활에 있어야겠죠 총활량 .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비 수주 실적 보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고요. 2021년에는 외부 정부 수지 전, 기업체 수지 총액이 천6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6백억이라는 수치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은 연구비 수주 실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과기전통부의 과제를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과기전통부의 수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게 저희가 정보부서 산업 여러과제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원천과제를 지원하는 부서가 바로 과기전통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SCI논문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기전통부 과제를 저희가 667억원을 저희가 작년에 수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제 중에는 연구개발 과제 및 인력 양성 과제 또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앙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 연구 과제, 규모가 큰 여러 교수님과 여러 대학생이 참가하는 집단연구과제 대표적인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SCRC 이런 과제가 있고요. 또는 여러가지 원천기술개발과제, AI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인력양성 과제를 저희가 수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양성과제와 여러가지 국제협력과제 대안과제를 수지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최근 2년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구비 수주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캠퍼스를 학생분들이 많이 안 나오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밤 늦게 가보면 다른 건물에 환하게 불이 켜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우리 중앙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에 같이 동참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대학원생 수를 보면 이것도 아주 완만한 곡선이기는 하지만 2021

년까지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고요.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신문지상에서 브레인코리아 21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것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는 전문 과제입니다. 시작한지가 벌써 한 20여년이 됐고요. 지금 현재 4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3단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3단계 BK사업에서 저희가 세계 단 9개 팀에서 247억원을 수주했는데 4단계, 작년부터 시작된 BK사업에서 저희가 사업단이 9개 6개 사업팀 총 5백5십5억원을 수주했습니다. 일반 연구과제 또는 인력의 양성,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여러분들이 BK사업이 학과에 진학하시면 전액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9개 사업단과 6개 사업팀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이랑 혁신인재사업단이랑 합해서 9개 사업단이 저희 BK사업에 선정되었고요. 미래인재양성팀으로 6개 사업팀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단은 보통 한 9분에서 15분 교수님이 참가하는 대형사업이고 연구비 지원 규모가 한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되고 사업팀은 그 과에서 몇 명 교수님께서 참가하시는 과제고 연구 비용은 3억에서 4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몇가지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도서관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실제로 많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교학부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가 강점을 가진 AI시스템을 마련해서 RFID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대출을 하고 책을 인제 빌리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또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손쉽게 서치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마련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좀 띄어앉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원은 줄지만 지속적으로 11시까지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빌린 도서를 반납할 수 있고 또 연체료도 납부할 수 있고, 여러가지 추천 도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부총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 중앙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명문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는 키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학교의 여러 연구현황, 연구개발과제라든가 또는 논문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BK등의 대학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제 대학원을 많이 진학하셔서 저희 중앙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산호 행정부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총장 이산호)

학생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총장 이산호 교수입니다. 저도 짧게 몇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 개선 결과와 CCTV 확충 및 설치 현황, 발전기금 모금 현황, 2022학년도 입시 결과, 2021년 정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관 신축공사입니다. 공사비용은 대략

119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고요 건축규모는 연면적 1176평 지하1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아마 병원하고 의대 중간에 있기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조그마한 건물이기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저 건물이 땅 파기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아마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을겁니다. 두번째는 많은학생들이 보셨겠죠? 204관 전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작년 5월에 시작이 돼서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공사비용은 대략 11억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림에서 보시는것으로 기존의 노후 계단을 석면, 석재마감으로 교체 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하 각 1대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해 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공사 전과 공사 후가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실텐데요, 현재 작동중이기 때문에 회의가 다 끝나면 한번 여러분들 탑승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 시행했던 203관에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은 대략 6.6억이고요 3층에서 8층까지 203관의 전층 화장실 리모델링 했으며 장애인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105관 201호실에 다반치클래스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강의실들을 다빈치룸으로 혹은 현대식으로 개선공사를 시행해뒀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면강의가 시작되면 학생들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것입니다.

모든 기계가 제손으로 넘어오면 작동이 안돼요.

현재 중앙대학교에는 서울캠퍼스에 공연예술원을 포함해서 920대의 cctv 가 설치돼있습니다. 기존에 330대를 계속 운영하고있고요 교체를 351대의 카메라를 교체했고 신규로 239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양은 최첨단인 500만화소가 되겠구요, 소요예산은 약 6억정도를 들여서 설치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살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를 보시면 계속운영하는것과 교체된것, 신규로 설치한 카메라의 대수를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위치를 보실수 있을텐데요, 여러분께서 관심가는 건물에 몇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은 건물은 역시 310관으로 230대의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에도 감시용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동안에 발전기금 모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2015년도에 59억 2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74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고요 작년에는 97억원 이상 예산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박상규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2년동안 170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발전기금 모금에 있어서 거의 기부자 위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영 동문, 리대룡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님, 약학대학의 진정주 동문께서 거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하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중앙대학교의 교수님들과 명예 교수님들께서 발전기금 기부 릴레이에 동참을 해 주셨다는것입니다. 보시는것처럼 리대룡 교수님, 박송 명예교수님 고 손동헌 명예교수님, 고 고흥화 명예교수님, 고 김용수 교수님, 고 유목상 교수님, 김이경 교수님, 심문섭 교수님, 김미경 교수님 이외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발전기금 기부 릴레이를 펼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는 주요 대학중에서 지원 인원수로만 따져보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대비 지원인원은 대략 6천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대비 등록인원은 19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96명의 등록인원은 약학대학의 신입학 모집의 영향이 있고요 정원의 등록생의 증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참 전에 언론에서 워낙 민감한 이슈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93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동안 2022, 2023, 2024년도까지 매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대학의 계획에 따라서 자율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다음은 이형환 안성 부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성 부총장 이형환)

안성 부총장을 맡고있는 전통예술학부 교수 이형환입니다.

저희 안성캠퍼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과 캠퍼스 명칭 변경, 그다음에 학생 복지 및 안전 그리고 학생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으로서 지금 공사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바닥까지 되어있고요

국악관 음향 공사를, 지금 음향및 조향 공사를 진행하고있고요 예산은 대략 3억 2천정도 들어가고있습니다. 지금 대운동장 공사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고계시겠지만 약간 시공사와의 갈등 관계에 있어 공사가 중단 되고있는데 학교측에서 여러 다방면의 노력으로 해결되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08관 809관 810관이 2021년도 5월달에 엘리베이터의 증설 및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실험실습..

그리고 605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17억 4천만원정도 들어가서 로비뿐만아니라 실습실, 오케스트라실, 리사이틀홀실까지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에 그동안은 샤워부스에 비닐천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부분을 이제 칸막이 형태로해서 샤워부스를 새로 설치할 했고요. 그다음에 904관과 905관 창호교체를 4억 6천정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소재공학과에 새로 설립되는 교육시설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달 완료해서 23억원을 들여서 교수강의실뿐만아니라 교수님들 연구하실 수 있는 편의와 관련된 모든시설을 완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공학대학 CAU 그다음에 바이오그린 공간조성에 3000만원정도 들여서 3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림에 보시는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술대학 창작 작품 전시공간 신설해서 1층,2층에 갤러리형태로써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기작품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안성캠퍼스 구성원이라면은 언제든지와서 자기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들리지 않음) ~ 할 예정이구요.

우측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다빈치 캠퍼스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는 올해, 그다음에 2023년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래 현재 입학과 관련된것이라던지, 교양센터라던지, 다빈치센터라던지 이런것들이 혼용되어 있기때문에, 서울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 캠퍼스로 하려면 그런 명칭의 통일성이라던지,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복지 및 안전에서 학생식당은 직영으로해서 카우로 해서 학생식당을 오픈을 했구요. 검역소를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생활관 운영도 생활관 자체 검역소도 운영하고 입실을 희망하는 사람들에대해서는 입실을 작년에 경우에는 1인1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동킥보드 요즘 안성캠퍼스 같은경우 고바우가 있기때문에 그걸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22학년도에 예정된 걸로써는 학생식당운영은 동일하고, 생활관운영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게 야간에 내리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역때문에 열지를 않았는데 야간에 18시부터 익일08시까지 개방을 할 수있도록 할려고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증을 이용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교육이라던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학생활동 지원방향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때문에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작년에는 학생활동을 많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캠퍼스에서도 교학처에서 신입생이나 아니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여러가

지 게임이라던지 아니면 경품권이라던지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대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성캠퍼스교학처에서는 학생활동이 예전과 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생들간의 우애도 다지고, 그걸 통해서 안성캠퍼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학생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캠퍼스는 여러가지로 지금 시설 투자라던지 총장님의 배려로인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나 아니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학기 달라지는 안성캠퍼스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성 기획처장님과 우리대학의 CAU2030 비전 체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기획처장/김규성)

네 안녕하세요 기획처장을 맡고있는 사회복지 학부의 김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CAU2030 비전 체계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U2030체계는 2018년 10월에 선포된 우리대학의 뉴비전이자 장단기 발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혁신과제별로 이행점검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것 처럼 CAU2030체계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그리고 기반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비전을 보시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중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중심에 우리 중앙대학교가 위치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표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지식창출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5대전략사업과 10대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전략사업 2개, 또 교육과 관련된 전략사업 2개 그리고 글로벌과 관련된 전략사업 하나이고, 각각의 전략사업별로 2개의 세부적인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CAU2030체계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창출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우리대학의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그런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은 미래세대에 대한 역량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AI기반 전주기 학생 성장 지원 체계를 통해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의미입니다. 세번째로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이라고 함은 우리대학이 다양한 문화권의 인재들간의 물리적 인,화학적인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인해서 명실상부한 국제화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5대사업과 10대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핵심연구그룹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것은 CAU대표연구소를 설립하고, 석학급 우수 교원을 육성하는것으로 세부과제를 갖고있습니다. CAU대표연구소의 설립은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표연구소를 2개,혹은 3개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대학엔 현재 총 71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매년 후보군을 축소해가면서 최고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학급 우수교원에 대한 육성은 먼저 우수 연구그룹이나 연구력이 높은 교수님들을 영입하고 그 이후에 CAU-Distinguished scholar라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교원을 최고의 수준까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있습니다.

(기획처장 김규성)

석학급 우수 교원에 대한 육성은 먼저 우수 연구 그룹이나 연구력이 높은 교수님들을 영입하고 그 이후에 CAU Distinguished Scholar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교원을 최고의 수준까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협력 활성화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학제간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학제간 융합 연구 활성화는 미래융합원을 새롭게 지원해서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은 현재 랭크 사업이나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산학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기반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한 융합형 교육 활성화와 경험 강화 비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활성화는 AI+ 교육체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비교과 과정은 여러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단계별 비교과 과정을 구축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체제에 대한 혁신과 관련해서 다빈치 러닝, 여러분도 다들 경험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개발해서 지난 2021년 기관평가 인증에서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학사 시스템 도입은 조금 전에 부총장님이 설명해주신 e-Advisor 나 Rainbow 혹은 챗봇과 같은 ai 기반의 새로운 학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 학사 제도를 도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구축과 관련하여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및 파트너십 기반 교류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학문단위를 육성하고 또 글로벌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며 해외 대학과의 전략적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 우리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혁신 방안을 어떤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새로운 하나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CAU 2030 도 그렇고 이 내용도 거의 6-70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팩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결론 한 장으로 요약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COVID 19 이라고 하는 새로운 팬데믹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도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학 관점의 주요 변화상을 분석해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성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함께 분석해서 다른 선진 대학의 대응 사례와 함께 분석을 하고 Best Practice 를 도출해서 시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7대 혁신 과제를 만들어냈고요. 그 과제별로 과제 점수를 만들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서 3개의 Quick win 과제, 2개의 단기 과제 2개의 중기 과제로 최종적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래 사회 대학 교육의 변화와 관련해서 2년간 COVID 를 경험해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과거에 연구 중심에 집중을 했다면 또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혁신 과제다 라는 내용이 부상했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디지털 교육 전환이 확대되고 있고 대학 간 공유 협력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팬데믹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과 관련된 혁신 비전이나 방향으로 디지털 서비타이제이션 인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교육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가치와 역할을 만들어내는 Value Creation, 만들어진 가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Value Delivery,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와 전달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또는 확산하기 위한 Value Expansion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혁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의 또는 3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Value creation과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러닝이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교육 혁신 모델이었다면 AI + X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학생 역량 성장을 위한 학습 성과 평가방식을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점을 A,B,C 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받았다면, 앞으로는 역량 중심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좀 더 학생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단기 추진 과제고요. 세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캠퍼스 공간 전환입니다.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강의가 가능한 첨단 강의실을 구축해서 캠퍼스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고요. 네번째 에듀테크 활용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은 AR 이나 VR이나 XR과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고민하고 lms 를 고도화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학습지원체계 e-Advisor 를 고도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미 virtual college 를 신설해서 미래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CAU 온라인 교육 모델을 통한 혁신 교육을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마이크로 디그리나 온라인 학석사 과정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고요. 디지털 교육의 플랫폼과의 협력 모델 수립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mooc 외에도 edx 나 coursera 와 같은 다양한 외부의 플랫폼과의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형 교육 혁신 실행을 위해서 혁신 센터나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혁신 전략 기능과 추진력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CAU 2030의 지금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 혁신 방안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장단기 발전 계획인 CAU 2030 플러스를 만들기 위한 TF 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계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휴식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10분 정도 쉬시고요. 3시 12분, 13분 이때 총장단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코로나19 상황과 비대면 학사가 지속됨에 따라서 학생자치공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위생 문제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 개강 초, 3월 초에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졸업요건 폐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자졸업요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각종 조사에서 결과로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한자졸업요건 폐지 설문조사에서 총 4,085명의 학우분들 중 약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 공부와 한자 능력 간의 연관성 부족과 취업시장에서의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작년 총학생회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학사정기협의체에서 학교 본부는 비대면 학사에서 일시 중지되었던 한자 졸업요건 폐지, 한자 졸업요건과 대면학사 후의 효용성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부는 이번 2022학년도 1학기가 대면 학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자 졸업요건이 다시 시행될 것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자졸업요건의 어떠한 효용성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학사와 대면학사에의 중복 효용성을 언제까지 비교하셔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자졸업요건 폐지와 관련해서 학생대표자들의 논의에 대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졸업요건이 시대착오적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졸업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자졸업요건을 폐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하세요. 아, 간호대학 학생님 질의해 주세요.

(간호대학/학생회장/김예림)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이라는 현 교명 변경요구 관련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단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협약 조건에 따라 교명이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적십자간호대학’이라는 현 교명은 사회적으로 구 적십자간호대학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통폐합이 아닌, 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의 4년제로의 승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줍니다. 이는 사전에 제출해 드린 첨부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간호대학 역시 중앙대학교 소속 단위인 만큼 더 이상 이를 간호대학만의 문제로는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교와 구 적십자간호대학 간의 법적인 문제도 얹혀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현 교명의 변경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이 현 교명에 대한 한계를 직접 겪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현 교명과 관련하여 본부와 간호대학 학생 대표자 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환경개선요청 요구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내에는 간호학생을 위한 실습 공간으로 남여 각 1개의 탈의실과 16층 휴게실만이 존재합니다. 어, 이곳에서 학생들은 탈의, 휴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마저도 냉난방기의 부재, 시설물 고장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학생 개인이 병원에 건의하기는 어려우며, 학생회 역시 어떤 경로로 이를 건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대학교병원이 우리학교 병원인 만큼, 본부 차원에서 본교 간호학생들의 실습환경개선을 위해 병원에 이를 요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경제대학/학생회장/류동현)

네,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류동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공과목 및 계절학기 과목 증대를 요구드립니다. 현재 경영경제대학 및 7개 학과들 중 응용통계학과를 비롯한 다수의 학과들이 전공 강의시간들이 겹쳐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과생, 편입생들도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국제물류학과와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일 년 두 학기 중 한 학기에만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3, 4학년같은 경우 전공필수과목수강 또는 이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부의 경우 현재 계절학기 과목으로 전공기초과목인 경제학개론, 전공필수과목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만이 개설된 상황입니다. 경제학부 재학생 수와 전공과목수에 비해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우분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여전히 학우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효율적인 강의 수강을 위해 전공과목 효율적인 편성 및 계절학기 시 다양한 과목들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드리는 사항은 310관 내 강의실 및 휴게공간 시설 사용 범위 확대 및 재정비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강의 수강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교과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비교과역량 배양,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의 소통을 통한 전인적 성장,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잠재력 개발 등 모두 이러한 것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지성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 이외에도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고 강의실 방역, 발열체크 등 방역조치를 갖춘 채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학생자치공간 및 휴게공간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사용 범위 확대를 요구드립니다. 또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연속적으로 있을 경우, 학우분들이 중간에 비대면 수업을 듣거나 휴게할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강의실 개방도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기간 비대면 학사 체제로 인해 310관 3, 4층 학습휴게공간, 강의실 내부 청소 상태 미흡 등

310관 내 많은 공간들이 노후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면학사체제의 전환에 맞추어 학우분들의 원활한 학업 활동을 위해 강의실 및 휴게 공간 시설 재정비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사범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학생회장/김성준)

사범대학 학생회장 김성준입니다. 사범대에서 첫 번째로 요청드릴 사항은 305관 체육관과 헬스장, 그리고 임용고시반 자습실 운영 공간 개방입니다. 먼저 체육관의 경우에는 현재 수업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교육과는 과 특성상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수업 외에도 체육관을 개방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용고시반 자습실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체육관 지하1층에 있던 임용고시반 자습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임용고시반 자습실을 폐쇄했고, 그 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지하1층에 있는 임용고시반 자습실 운영 재개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5관 지하에 있는 헬스장 또한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청드릴 사항은 사범대 각 학과 과방 및 실습실 개방입니다. 현재 비대면 학사 이후 학생자치공간이 폐쇄되어 재학생들의 과방 및 실습실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면학사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충 및 소통공간 확보를 위해 과방 및 실습실 공간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학생자치공간 사용 시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비상대책위원장/박성혁)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혁입니다. 저희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꽤 많은 단위요구안을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대표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방호, 청소 등 학내노동자 처우 개선의 건입니다. 해당 단위요구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차례째 올리고 있는 단위요구안인데요, 중앙대학교는 2019년 말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한 바를 밝힌 바 있으시고요,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극대화 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의학관 등에서는 방호노동자 초소를 둘로 나누어 청소노동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휴게시설이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개선요청을 드렸는데 ‘총무팀과 협의 중’ 이라는 답변만을 내고 개선상황이 없습니다. 매년 사회과학대학에서 단위 요구안으로 올리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교내 청소,방호노동자 및 주요 상시고용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휴게시설 처우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전공과목 개설 제한 완화와 다전공자 여석 확대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주요학과,부에서 전공과목 여석 부족 및 다전공자 여석 부족으로 수강신청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사항을 요구했지만 교무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리학과에서는 영어a강의 대체가 가능한 한국어 강의가 부족하고 대학원 강의 위조로 개설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타학교는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분할 하지만 중대 심리학과는 상당부분 제한되어있습니다. 공공인재학부는 교원부족으로인해 초대형,초밀집 강의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권관련 과목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국제학과는 학과인원수에 따른 과목개설 제한으로 타학교에 비해서 커리큘럼이 미비하고 과목 숫자는 물론 커리큘럼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빅 데이터와 같은 현대정치학에 추

가적인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과목 종류에 대한 부족 및 다전공,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여석부족으로 졸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중앙대학교 법정전임교원의 미달 등 다양한 문제가 얹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전임교원 및 강사확충 및 전공과목 개설 완화, 전공기초 다전공자 여석 확보, 다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여석 확대, 기타 전공과목 확대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대학/비상대책위원장/김다운)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전공과목 증설과 강사진 확충을 요구드립니다. 예술 대학 서울캠퍼스 공연영상 창작학부의 경우 교수 수 가 적어서 학생대비 다양한 선택지 없이 정해진 커리큘럼안에서 수업을 듣고있는 상황입니다.이것이 몇 년째 이어져 모든 학우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대학 교수진 확충과, 전공과목 추가 개설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과 향후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을 위한 줌 이용시간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학생회장/김민철)

의과대학에서는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양학점 이수 완화, 한자 졸업요건 폐지입니다.

의과대학 학사일정에 따르면 본과는 수강신청이 없고, 08:30부터 17:30분까지 전공수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졸업요건인 30학점을 채우려고 한다면 예과 2년동안 채워야 하는데 2학년 2학기는 전공이 24학점이라 교양수업을 듣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때 대부분 채우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양이수 학점을 줄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자 졸업요건 폐지입니다. 한자는 여러 학문의 기초 심화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다만 의학에서 요구하는 한자의 범위는 한자국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일상어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자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를 전공 기초로 편입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한자 3급을 그냥 따라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학/비상대책위원장/이유진)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유진입니다. 두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건물 공간 배정 관련, 협의체 신설 및 학생참여 및 신축건물 진행과정 정기적 공개입니다. 중앙대학교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신본관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문대학 학우들도 신본관 건물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본관 배정과 관련된 협의체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문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신축건물 건설과정과 관련한 주요내용 및 건설 과정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성적기준 제시 및 세부성적공개 의무화입니다. 인문대학 강의 중 성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성적기준은 제시하지만 학생들의 세부성적은 공개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학생들은 세부성적 및 성적 기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만, 교수권 재량으로 공개하지 않는 과목도 매우 많습니다. 이에 과목의 성적 기준 제시 및 세부성적 공개를 의무화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학생이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자연과학대학은 배성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대리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학생회장 대리인/배성호)

자연과학대학 최재인 학생회장님께서 현장에 참여하신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제가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전공과목 세부 성적 및 평가 기준 공개는 인문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점기준과 세부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는 해당내용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사정비협의회에서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교무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학생들에게 공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강력한 만큼 채점기준과 세부성적 공개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 실습비 사용내용 공개 및 반환입니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실험강의를 직접수강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 변환은 없었습니다. 대면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은 실험 실습비를 반환을 요청드리고 어렵다면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공대/학생회장/배성호)

첨단소재공학과와 통일공대 행사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 요청드립니다, 첨단소재공학과는 공과대학이지만 안생캠에 위치하고 있어 단과대학 행사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각종 행사들이 많아 질 것인데 이에 따라서 단과대학 행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첨단소재공학과로 지원대는 비용 중 일부를 버스대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7관 창문을 단일 창에서 이중 창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뽕스트홀은 건축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고, 중앙대학교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상당기간 재건축 예정이 없어서 실내 온도 조절 등 동파사고, 고가장비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사고 후조치가 아닌 각종사고에 대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스트홀 건물의 복도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 요청드리고, 각 연구실 사정 등에 인해서 모든 교체가 어렵다면 복도와 학생자치 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치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아리연합회/학생회장/박태운)

안녕하세요, 동아리 연합회장 박태운입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인증서 전산화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신청서 목록에 활동인증서를 추가해서 현재 동아리연합회에서 가지고있는 회원명단을 전산화해서 동연측뿐만 아니라 발급자 입장에서도 보다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타대학의 경우 무인발급기로 동아리 활동 인증서를 발급한 대학이 존재해서 이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그 외로 시설 개선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샤워실 블라인드 설치 및 교체, 정수기 추가 설치, 나동 정수기 사용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학지처와 논의후에 개선을 약속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인증서 요청드립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성캠퍼스 총학생회/학생회장/김정현)

네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정현입니다. 안성캠퍼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교본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는 도로환경 개선, 건물 내외부 보수, 가로등 설치를 학생 안전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환경개선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 외에 환경개선 사항 역시 학사운영을 진행함에 따라 학생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캠퍼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교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생활권을 위해 캠퍼스 환경 변화에 대한 단계적, 실질적인 계획을 (마이크 끊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부학생회장/이소영)

안녕하세요. 안성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소영입니다. 저는 안성캠퍼스 홍보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양 캠퍼스 통합홍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 이 자리에서도 같은 질의로 질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공식 홍보자료에서도 안성캠퍼스에 관한 비중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고 최근 입학처 유튜브에 게시된 중앙대학교 2020학년도 합격 축하 영상에서는 안성캠퍼스의 전경, 안성캠퍼스의 학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공식 홍보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성캠퍼스에 관한 자료 및 내용이 배제되고 있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양캠퍼스 통합홍보를 위해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중앙사랑 홍보대사와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카운슬러 홍보대사 활동에 안성,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비율이 균형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사랑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성캠퍼스 학생은 한 명입니다. 선별 면접시 안성캠퍼스 소속이면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캠퍼스 홍보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캠퍼스 투어조차 서울캠퍼스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단체의 인원의 비율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성에 중앙대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성캠퍼스 학우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성캠퍼스 외부행사 개최, 효율적인 행사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학이고 두 캠퍼스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양 캠퍼스의 통합홍보 전략 수립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리연합회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캠퍼스 동아리연합회/학생회장/김세실)

안성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김세실입니다. 먼저 이번년도 동아리연합회에서는 학생회관에 동아리방 냉난방기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현재 동아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동아리방에는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는 특히 동방 내부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안성캠퍼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계속 동아리방 냉난방기 설치를 건의해왔지만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이유로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계획된 리모델링 이전에 동아리들이 여름, 겨울에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 동아리방에 중앙 냉난방기 말고 휴대가능한 냉난방기라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동아리방에 냉난방기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비어있는 해당 동아리방을 모든 동아리방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서 중앙동아리 학우들의 유연한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기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회관 동아리방에 책상과 의자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부분 동아리방의 시설이 열악합니다. 동아리방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동아리방의 집기가 매우 노후하였고 책상과 의자가 없는 동아리방도 많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런 동아리 방도 많은데요, 동아리 방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책상과 의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안성캠퍼스 예술대학/학생회장/송송이)

안녕하세요 안성캠퍼스 예술대학 학생회장 송송이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요, 608관 국악당 교육환경 개선 및 명칭 변경에 대해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국악당을 전통예술학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대학 학우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희망합니다. 서울캠퍼스에는 예술대학 학생들이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는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대학의 과반수가 재학 중인 안성캠퍼스에는 예술대학 학생들이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총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에 국악당 교육환경 개선이 있지만 다 같은 예술대학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바입니다. 국악당이 안성캠퍼스의 대표 공연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공사 및 명칭 변경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808관 예술대학 건물 외관과 내부 실습실 노화로 인한 전면 리모델링을 요청드립니다. 808관은 현재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808관 건물외관과 내부실습실이 노화되어 건물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건물 시설이 많이 노화되었기에 전면 리모델링을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생명공학대학/학생회장/하창조)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하창조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904, 905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904, 905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험 실습시 사용되는 여러 화학 물질이나 실험도구들을 일일이 계단으로 옮겨야하는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대학교 학사 방침상 실습수업이 전면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실험, 실습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810관의 층별 cctv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안성캠퍼스 810관의 cctv는 엘리베이터 두 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면 수업시 생명공학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내 4개의 단과대학 학생들이 교양수업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 중 하나인데 복도나 계단 앞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에 의해 cctv 설치가 우려되고 있어 도난사고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공학대학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술공학대학 회장님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공학대학/학생회장/신수찬)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예술공학대학 회장 신수찬입니다. 먼저 유연학기제 학사일정에 맞는 수강정정기간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예술공학대학은 기존 16주 2학기 편제를 8주 4학기 편제로 바꾸어 과목을 이수하는 유연학기제를 2학년 1학기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과목은 중간고사가 끝난 시기인 5월과 11월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들의 수강정정기간은 일반적인 과목과 동일합니다. 전공수업이 학생에게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적어도 한번정도 수업을 들어야지 학생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유연학기제 과목 수강정정기간에 대한 요구를 해왔으나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하며 유연학기제 학사일정에 맞는 수강정정기간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공과대학 공통교양 강의 분반 증설을 요청드립니다. 2021학년도까지 공과대학은 ‘디자인적사고와 문제해결’이라는 공통교양을 수강해왔으며 22학년도부터는 ‘ai시대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사고’라는 강의를 수강해야합니다. 안성캠퍼스에는 공과대학이 현재 예술공학대학과 첨단소재공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분반만 개설되어 나누어 수강해왔으며 1학기만 개설이 되어 수강,재수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단소재공학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예술공학대학이 3개의 분반을 모두 사용하였지만 안성캠퍼스의 첨단소재공학과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분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공학대학의 분반을 첨단소재공학과에 하나 주어 전체 3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공통교양은 1학년 공통교양이라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듣게 해서, 재수강을 해야 하거나 이전에 드랍하여 타학년이 수강해야 하는 경우 분반마다 인원이 많아 여석을 잘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캠퍼스에서 공과대학 공통교양강의를 증설시켜 약 140명의 신입생들이 쾌적한 수업을 하고 타학년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대학 학생회장님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학생회장/이창성)

네 안녕하세요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창성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907과 4층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및 좌석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907과 4층 멀티미디어실 mm로 인해 다른 e스포츠 수업 진행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및 좌석 전면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군단에서 순수체육관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가로등 추가 설치 및 가로등 밝기를 높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본 구간의 가로등 밝기가 너무 어두워 많은 학우 분들이 그 통로를 지나갈 때 많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구간에 가로등 추가 설치 및 가로등 밝기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모두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1번 답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교성)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음... 총학생회 1번 학생자치공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과 공과대학에 봅스트홀 창문을 단일 창에서 이중창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내용... 이 두 개의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매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이 학교대표들과 등록금 수준에 관한 인상여부와 수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요청이 된 내용이었구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평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질의가 돼서 이미 답변이 된 내용입니다. 답변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된 내용들은 학교로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북스토어에 대한 이중창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안전처, 시설팀에 현재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미 배정되었는 예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학생들 자치공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북스토어에 대한 수선은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

다. 다만, 첫 번째 것은 요청하신대로 개강 초에 가능할지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북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자연공학계열의 공간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작업이 대단히 필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은 시설환경 작업을 하는 동안 실험이 멈춰지면 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팀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과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글썽요 복도층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총학생회 두 번째 질문, 한자 졸업요건 폐지와 관련해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교학부총장 백준기)

네 총학생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자 졸업요건 폐진데 이걸 그 뒤에 있는 의과대학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한자 졸업요건이 왜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한자의 효용성에 대해서 학생들은 지금 많이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학생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은 다수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대학의 교육 시스템, 정책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만 가지고 다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특히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이유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한자교육이 일종의 교육 이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학과들 교수님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물었었는데 교수님들 의견도 역시 반반 정도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의과대학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학문 단위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좀 다르고, 좀 더 뭔가 거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한자 졸업 요건은 최소한의 한자의 소양은 모두 다 갖자라는 것에서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생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니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는 일단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3,4학년들은 비대면 강의 시기에 일시 면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역시 작년 내내 비대면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2학년까지는 한자 졸업 요건 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의견은 사실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제작년에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일단은 2학년까지는 면제를 고려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적십자간호대학 교명 변경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총장 박상규)

한자 졸업 요건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자를, 저는 한자를 배운 시대였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편한 것도 많고 또 뭐, 여행 다니려고 한자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은데 세상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한자졸업요건에 관해서는 좀 올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어렵다면 대체하는 기준을 잔뜩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여간 학생 여러분들이 도저히 한자 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이수를 강요하는 것들은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간호대학 교명 변경 요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좀 대학과 대학 간의 인수 통합 과정에서 생긴 이슈고요. 사실 이 명칭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법인 이사회의 적십자사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법인 이사로 들어와야 되는 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명칭에 관련된 이슈는 아니고요 사실 예전에 70년대에 서라벌 예술대학교를 중앙대학교가 인수한 적이 있어요 당시도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대학도 사실은 전문대학이었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재원을 배출한 그런 대학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학교에 서라벌 홀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이름도 한동안은 유지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fade out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단지 적십자간호대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뺏으면 좋겠어요 뺏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부분은 법적인 이슈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fade out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덜컥 빼버리게 되면 법적 소송문제가 되고 실제로 적십자사에서는 그 때도 적십자간호대학과 중앙대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당장 우리가 적십자라는 단어를 빼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든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하다가는 저희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중앙대학교 병원의 간호 학생실습 환경 개선 요거는 제가 직접 병원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의료원장님과 의무부총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경영경제대학 전공과목 및 계절학기 과목 증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대 교학부총장 백준기)

네 경영경제대학 과목 계절 증대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로 나눠서요. 우선 그 경제학부에 관련된 것인데 구체적인 요청을 해주셨습시다만 요청사항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 목록을 주시면 좀 경제학부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요거 그냥 학생들의 요청만이 아니고 좀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교원의 경우 방학 동안의 연구 때문에 계절학기를 그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도 수요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제물류학과와 경우에는요 학과과 현재 계절학기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요. 수요가 확인되면 계절학기 과목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경영경제대학의 또 두번째 요청사항인데요. 310관 내 강의실 뒤편 휴게공간 이거에 대해서 현재 그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비는 강의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비는 강의실을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팀하고 시설팀하고 EHS하고 안전대책을 협의해서 지금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곳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학사질문이 더 있는데요. 사범대학의 그 첫번째 질문이 체육관 공간 사용과 또 지하시설과 과학생회실 그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면 체육관 공간 사용은 저희가 교양수업하고 전공수업을 제외한 시간을 학과 내에서 좀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방역지침하고 검토를 해서 일부 내지 전부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유아교육과 영교과 과학생회실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요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지금 지하시설이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방역지침에서 개방을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지침이 개장을 하고 좀 요렇게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방역지침하고 요렇게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그 다음은 예 사회과학대학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중앙대 행정부총장 이산호)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에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노동자의 간접고용문제하고 휴게실 미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휴게실 문제는 개선을 해오고 있고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몇개월 전에 의대에서 언론사에 공개가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때 계단 밑에 비좁은 휴게실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환경원의 수준이 이정도냐, 그런데 관리책임자로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학교가 제공한 공식적인 휴게실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학내 공간 몇 군데에 지하실이나 계단

밑에 비공식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미 반환요청을 다 해 놓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내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서로 같은 공간을 쓸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몇몇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한 공간을 거부하고 지하로 내려간 곳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가 제공한 공간은 계단 밑이나 지하실 공간은 점차 지상으로 올려두고 환기가 원활하게 되는 냉난방 잘되는 그런 공간으로 대부분 옮겼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몇 군데에서 공사가 거의 완료 상태에 있어서, 아마 학기가 시작이 되면 곧바로 뭐든 지상공간으로 휴게실을 옮겨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는 현재 305관 지하공간 등 몇 군데에서 동일한 공간을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상시고용에 대해서 직접고용을 말씀하시죠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는 간접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그게 아무래도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저희들이 경영에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당분간 저희도 직접고용을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사회과학대학 두번째 질문

(교학부총장 백준기)

네 사회과학대학에 전공과목 개설 제한을 완화해주고 다전공자 여석 확대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학이 그 수강신청이 어렵다든지 필요하면은 전공과목 개설 제한을 완화를 해야되는 거는 맞는데, 그 완화를 하는 과정이 그냥 단지 수강신청이 어렵다 단지 부족하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학과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개설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전공자의 여석 문제도 사과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인기 과목들에 많은 수강신청이 쏠리고 있어서 학교가 분반 개설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 힘들고요. 교강사 확보 가능 여부도 좀 함께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과 자체가 그 교육과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완화를 요청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절차와 수요를 거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과대학 학장님, 그리고 또 학과장님과 소통을 주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사항은 일단 단위요구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최대 제공중인 각 학과별의 사유 또 존재 전공과목 개설 제한 등은 중앙대 전체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내용으

로써 사회과학대학만 완화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술대학에서.. 네

(총장/박상규)

제가 사과대의 질문사항중에서 전임교원 충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차로 총장을 하면서 지난 2년동안 평균 6-70명 정도 교수님을 선발했어요.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도 공공인재학부라든지 이런 학문단위의 전임교원 충원을 할겁니다. 하는데 지난학기에도 충원이 됐는데 저희가 선발을 못했어요. 선발을 못한 이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충원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싶은데 뽑다 보면 그런게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뽑을 수가 없는거예요. 저희가 교수를 일부러 안뽑는다는게 아니라 사실은 중앙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고 나면 평균 30년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3년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가야되는데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가진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뽑다 보면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뽑고싶었지만 최종 선발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임교원 확보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 충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겁니다. 단,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학부총장/백준기)

다음은 예술대학의 첫 번째 질문 중 시간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줌의 라이선스가 교수자들은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4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학생들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라이선스를 드린 것이 아니고 줌이라는 본사 정책이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던 것이구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무제한 라이선스를 사용한 것은 중앙대학교가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줌 본사의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학생들은 40분 제한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교에서는요 교수자, 담당 직원, 조교, 튜터 등에게만 무제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사행정과 관련한 사정으로 반드시 줌 라이선스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명백한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교학지원팀에 요청을 해 주시면 공문을 통해서 라이선스 발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대학 강사진 확충과 커리큘럼 개편에 대한 요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강사진을 확충을 한다는 것은 강사진 확충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단 커리큘럼을 좀 확충해 달라는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공별 개설 학점의 상한이 학기별 39학점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커리큘럼을 단순하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편 요구사항을 먼저 전공 학과에 좀 전달을 해서 저희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연극과 영화 전공은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강사진의 임명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의 첫번째

한자 졸업요건 폐지는 아까 했던 답변으로 대신하구요 두번째 교양학점 이수 완화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의 특성상 교양 이수 학점을 완화를 해야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빈치교양대학에서는 일단 교양을 관할하고있는 교양대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을 했구요 학사팀에서도 역시 의과대학 졸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래서 의과대학이 공식 요청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확인을 했더니 의과대학은 교과과정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교양과목의 이수는 예과 2년동안 가능하고, 의무이수 교양학점 29학점을 타 학과 대비 2분의 1 기간에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의 완화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요청사항은 공통교양 7개 교과목 14학점만 의무이수 교양과정으로 적용하기를 요청을 해서 아마 요청한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문대학의 시설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 총장/이산호)

인문대학에서 요청한 공간개정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협의체를 신설해주고 참여를 보장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죠? 제가 인문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 마음을 잘 알죠. 사범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다른 단과대학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때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평가가 완료는 됐지만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면 대략 1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대략 1년정도가 소요가 돼서 건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2024년도에야 시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본격적인 설계라든지 공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과 공간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부터 2년동안의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 그런 공간에 대한 배정, 할당 시에 당연히 학생들과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학부총장/백준기)

그러면 다음에 인문대학 두 번째 질문과 자연과학대 첫 번째 질문이 좀 동일한 질문이라서 성적 기준 제시 및 공개에 대한 것이라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학생들이 잘 알다시피 교과목 담당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팀에서 열린학사회의를 할 때도 일단 채점 기준을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아마 열린학사회의에서도 공감을 했었던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한 것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교무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좀 보고를 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성적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을 의사를 반영을 해서요 현재는 중간고사 이후 포탈에 수시성적을 입력하고 수시성적조회를 통해서 성적을 공개하도록 대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좀더 투명하고 공개된 성적 기준과 또 교원들의 고유 권한이 같이 병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인데요.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고정비용, 변동비용으로 나뉘서 생각하는데 이 실험 실습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고정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험 실습에 들어가는 장비, 전력, 이런 것들이 비대면이라고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그 차이가 많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험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럼 학생들의 요구는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셨는데, 작년에도 공개했고 올해에도 공개 예정이니 이해가 안되면 저희와 다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김교성)

실험실습비 관련해서 교학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이고요. 비대면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실험실습비는 다음년도에 이월하도록 해서 실험실습 공간 개선, 기자재 구입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실습비 사용은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입고 올해도 수준으로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첨단소재공학과에 학생에 대한 지원 요청인데요. 셔틀 버스 대절 거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공과 대학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첨단소재공학부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지금 안성 총학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서울 총학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학처장/임선제)

두 번째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비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첨단소재공학과는 안성캠퍼스 편제된 정원으로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납부하시면서 이제 학생회비를 납부하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안성캠퍼스 총학생회로 배정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첫 번째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그 공과대학 하고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가 협의를 하면서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 활동은 안성캠퍼스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 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과대학 학생회와 첨단소재공학과 1학년 학생회가 협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안성 총학생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 활동은 서울에서 공과대학 학생회하고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안성캠퍼스 총학생회로 배정이 됐었던 첨단소재공학과의 학생회비는, 그 금액 그대로 서울 총학생회로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캠으로 그대로 그 금액이 넘어가서 서울에서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작년 그렇게 학생회 들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도 그런 일을 똑같이 발생할 것인데 그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학생회에서 공과대 학생회와 첨단소재공학과 학생회하고 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하고 협의를 하시면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처장/한중근)

추가적으로 실험실습비 올해에도 남는 것이 있으면 내년으로 다 이월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아리연합회 있어 어떤 두 가지 중에서 그 활동인증서 관련된 내용, 다른 학교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한테 우리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회원 명단을 전산화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 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면 프린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부총장/이형환)

예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해서 캠퍼스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기 2018년도에 안성캠퍼스 중장기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일곱 개 건물을 그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예를 들면 음악대학에 전면 나 지금 수업과 관련한 과목들이 개선이 되어있고, 저는 그런 그 중장기계획을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학생회나 아니면 급하게 시급하게 또 요구를 하는 것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중장기 계획 좀 지나면은 좀 늦게 어레인지를 해서 그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부사업 좀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성캠퍼스 홍보활성화 관련해서 부회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서울 안정되게 홍보에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되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소스를 발굴할 때 제대로 홍보팀에 토스가 되어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조금 누락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홍보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은 안성캠퍼스를 그거 소외시키고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홍보대사 관련한 것도 그런데 안성캠퍼스 학생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홍보대사 뽑을 때 좀 한 18명 제가 받은 자료는 열여덟 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명 지원에 안성캠퍼스 가 두명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 한 두 명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 좀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것도 그 총학생회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할 것 같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차별 없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에서 말씀해 주신, 책상과 의자 관련한 것들은 2022학년도 예산 지금 신청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책상과 의자는 수량 파악하면 전면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난방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거를 그냥 세우는 스탠드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천장형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돼 있고 홀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다시 한번 시설팀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원한다면 스탠드형으로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대학교의 국

악당 명칭 변경 사용과 한류 판의 전면 리모델링 그런 예산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국악당 지금 거의 바닥이 이제 다 공사가 되고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만 지금 하는 단계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할 때 학교 측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학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데 교육 시설로 저희가 쓰려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생회 그런 단위 요구안이 들어와서 같이 안성 캠퍼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기본적으로 낮에 6시 전까지는 대부분이 거기서 일단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따라서는 거기서 야간에도 수업을 합니다.

어디 경연 대회에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충분히 다른 안성캠퍼스에 있는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다 합의는 된 상태인데 다만 그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때 관리하면 직원도 나와 있어야 되죠 그거 조명 켜주는 학생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학부의 교수님들이 아니면 학부장이 허가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808관 전면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은 1차적으로는 안성 캠퍼스에서 예산 배정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그게 픽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워낙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신청을 해놨는데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808관에 조그마한 갤러리 시설들이지만은 그동안 2020년도 21학년도에 다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이제 전면 대면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술대학뿐만이 아니라 안성 캠퍼스 구성원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대학의 904관 905관 승강기 설치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시행을 하려고 입찰을 냈지만 입찰 회사가 입찰을 안 해서 지금 유찰된 상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관에 하나씩만 설치를 할 경우에는 입찰 들어오는 회사가 경제성이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 개의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한 회사가 그렇게 와서 입찰을 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성이 자기네들도 수익이 일정 부분 남아야 되는데 1개 2개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찰 들어오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빠른 시일 안에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ctv는 당연히 학과나 대학의 행정팀이랑 상의를 해서 그럼 당연히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공대는 잠시 후에 저기 우리 교학부 총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체육대학은 907관 컴퓨터랑 좌석 교체는 일부 또는 가용한 예산 안에서 일부 또는 전체 한번 다 교체토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ctv 같은 경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위치를 다 확인하고 지금 계속해서 안성 캠퍼스는 가로등이라든지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체육대 관련된 cctv도 위치를 확인해서 설치토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 공대의 유연 학기제와 교양 강의 분반 관련한 거는 우리 교학부총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학부총장 백준기)

네 예술 공대에서 첫 번째 요청하신 유연 학기제 학사 일정에 맞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운영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요건만 맞으면 되는데요. 현재는 학생들이 9주차에 시작되는 두 팀이나 4팀짜리 유연 학기 과목을 수강을 해보고 나서 수강 취소와 유연학기 교과목 간의 정정은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술공대의 공과대학 공통 교양 강의 분반 증설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과목이면 ai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 교양 과목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다빈치 교양대학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80명이 넘는 경우에 이제 2분반으로 개설을 한다는 규정에 맞게 사실 2 분반을 해도 숫자로만 따지면 물론 가능한 합니다 한 133명이기 때문에 2분반으로 가능한 한데 물론 학생들의 요청은 이게 매 학기 개설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학기 1학기에만 개설이 된다는 점 또 1학년 신입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강 신청 어렵다는 점 2, 3, 4학년도 좀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3개 분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요청하는 거는 이 3개 분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분반을 하는 것이 그냥 강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강의하실 강사나 교원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전임 교원일 경우에는 또 책임 실수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좀 현재는 어렵지만 세 개 분반으로 좀 운영을 그냥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올해도 운영해서 정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양대학하고 또 우리 ai 관련된 교양은 ai 대학원에서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운영을 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교학지원팀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분반이 가능할지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자)

네네 이상으로 총장단과의 대화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45분부터 총장 단가에 대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일부에서 이제 질의하지 못하신 추가적인 질의나 이런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진행자)

네, 그러면 2부 행사로 추가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자 분들께서 먼저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질의 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추가적으로 안성캠퍼스 대표자 분들 질의 있으시면, 손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캠퍼스/총학생회장/김정현)

네, 총학생회장 김정현입니다. 기숙사 공용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성캠퍼스 기숙사 내 화장실 및 샤워실을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층마다 중앙에 한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면학사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적으로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많은 안성캠퍼스의 기숙사생들에게 불안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은 위생적으로도 더럽고 청소 어머님들이 출근하시지 않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지 3동의 경우에는 호실마다 배치된 가구들이 오래되고 부식되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이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공용 시설 개선이 아닌 기숙사 관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관 시설 리모델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진행자)

답변을 하시는 게, 질문하고 답변하시죠 그러면 안성캠퍼스 추가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대표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캠퍼스/부총학생회장/이소영)

네, 안성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소영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생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생활관 운영방식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모든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동을 이동하거나 본인의 원래 거주지인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많고 당일날 이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관생들에게 불편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방에 사는 많은 관생들의 경우, 갑작스런 통보에 따라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기숙사는 해당 방역대로 조치가 취해지는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진행자)

네, 다음 대표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캠퍼스 예술대학/학생회장/송송이)

안녕하세요, 예술대학 학생회장 송송이입니다. 아까 첫번째로 질문드렸던 안성캠퍼스의 대표적인 공연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국악당의 공연 시설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부총장님께서 공연 시설이 아닌 교육 환경으로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서울캠퍼스에는 아트센터가 있지만 안성캠퍼스에는 대표적인 공연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런 공연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성캠퍼스 리모델링의 계획에 추가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추가로 더 질의할 대표자 계신가요? 안성캠퍼스

(안성캠퍼스 예술공학대학/학생회장/신수찬)

네, 안녕하세요. 안성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예술공학대학 회장 신수찬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시성적조회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한 평가 기준 및 성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학부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세부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성적 조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성적조회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지 않아 대부분 공란인 상태입니다. 특히 예술공학대학은 유연학기제를 시행하여 term 1과 3이 학기 시작 후 2개월 만에 끝나도 성적을 학기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정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연학기제와 다양한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성적조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대표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안성캠퍼스 체육대학/학생회장/이창섭)

안녕하십니까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존 풋살장 활성화 및 공터 공간 환경 개선 건으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악당 앞 풋살장과 공터의 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 대운동장 공사 소중 진행중에 있어서 체육대학 및 타 과 학우들이 야외 실기 수업에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악당 앞에 위치한 풋살장 옆 공터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풋살장 규격과 맞지 않아 그 빈자리에 풋살장 추가 건설 또는 그것이 안 되면, 풋살장 정식 규격으로 맞출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풋살장 추가 설치 등을 요청드리며, 아까 운동장 기능 개선 진행율이 60%라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성캠퍼스 운동장을 보면 거의 10%에 가깝지도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세부사항에서 어떤 부분에서 측정한 수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답변.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학생회장/하창조)

안녕하십니까 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하창조입니다. 현재 안성캠퍼스 810관 1층과 3층에 각각 복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대면 학사를 진행했었던 2019년도 기준으로는 복사실을 이용하려면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매우 혼잡한 그런 이용 시스템은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잡을 해결하고 학생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프린터기 설치를 적극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부총장/백준기)

네,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아까 그 수시성적조회 시스템부터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안성 부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시성적조회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시험 이후에는 좀 교수님들한테 그거를 입력을 해서 학생들이 조회 해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조금 안 되고 있는 과목들이 많다는 그런 질문이고요. 유연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좀 성적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시스템을 공지를 해서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고요. 특히 유연학기제 경우에는 특별히 강조해서 좀 더 수시성적조화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캠퍼스/안성부총장/이형환)

안성캠퍼스 쪽에서 추가 질의는 아마 그 기숙사 생활관 시설 관련과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과 국악당 공연 시설, 그 다음에 풋살장 그 다음에 무인 키오스크 설치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공연 시설이나 풋살장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교학처장님께서 말씀해주실텐데 공연 시설은 그게 교육 환경 중심인 것이 왜냐하면 공연 교육이라는 게 특히 예술대학에서도 공연 예술 쪽은 공연하는 게, 공연하는 게 그게 교육이고 그게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중심으로 그게 구축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성 캠퍼스의 다른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문 단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겠다, 아니면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공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직원 선생님 관련한 문제, 그거를 조명이라든지 음향 그다음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학부 교수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해서 공연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장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봐서 환경 개선 하거나 아니면 추가 설치할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학처장님 임시 교학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성캠퍼스/교학처장/임신재)

네 교학처장입니다. 기숙사 생활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캠퍼스에 있는 생활관에 이제 학생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 6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이제 모두 다 입주를 한다면 1944명의 학생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숙사 공간이 있는데 이 기숙사 공간이 1980년대부터 이제 건설이 돼서 6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좀 낮은 3층 이하 3층 4층 되는 게 낮은 건물로 돼서 이제 전원형으로 돼서 보기에 아주 멋

지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또 기숙사에 계신 또 관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선생님께서 관리는 잘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잘 쓰고는 있는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립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자기 방에서 잠도 자고 또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세면실, 샤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40년 정도 전에 기숙사를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독립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수요가 좀 적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축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성 캠퍼스에 있는 생활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층고, 1층에서의 높이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건물에 있어서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좀 충분하면 좋을 텐데 지금 안성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다 층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그런 독립된 화장실이나 욕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방별로 이제 배수관이 들어가서 배수 오수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급수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고가 낮아서 그런 독립된 공간에서 각 방에서 화장실이나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로서는 그런 층고가 낮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추가 시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생활관에서 대안으로 이제 마련해 드리는 게 공용 화장실이나 공용 세면장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안성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워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런 추가적인 것들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도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계속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1회 이상의 소독은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원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은 좀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공용 화장실이나 공용 세면장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성 캠퍼스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숙사를 신축하는 그런 좀 장기적인 과제로 좀 돌려서 당장은 가시적으로 좀 해결이 좀 불가능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관에서 더욱 더 좀 모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확진자 발생 시에 일어난 문제점인데요. 우리 팬데믹이 2년 동안 지금 계속되면서 작년 재작년에도 나오고 작년도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작년에 이제 처음 확진자가 나올 때는 건물 전체를 비우고 모든 학생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식의 저희가 격리, 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그때 그때 나오는 국가 방역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국가 방역지침하고 교육부의 방역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대 방역 지침 및 생활관 방역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격리라든가 이동 제한 같은 것도 굉장히 완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뀌는 방역 규정에 따라서 저희 생활관도 맞춰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따라 갈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 준용을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학생을 집으로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귀가해서 자가 격리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집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요. 피치 못하게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갈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성 생활관에서는 저희가 1인실에서 다시 말해서 혼자 1인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화장실하고 샤워실까지 같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6개 정도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지금 학생들한테 대실을 하지 않고 그 16개는 비상용으로 저희가 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그 확진자가 다른 데로 갈 데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그 16개의 1인실을 활용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지만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16개 1인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공대에서 이제 810관 복사실 업체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저도 생공대 교수로서 수업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는 19년까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프

린터기가 있는 복사실에 가서 복사하고 수업 자료들 핸드아웃 준비하고 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요. 그 때는 이제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다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면 수업으로 이제 풀리다 보면은 그 업체들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 업체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총무처에 있는 총무팀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무팀에서 그 업체들하고 기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직원들이 들어오고 할 때 최대한 무인 프린터기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요청하는 무인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서울 캠퍼스 대표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캠퍼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내에 답변을 다 못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위별로 단위 요구안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다 질의 못하셔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학생회장님 네 비대위원장님 네네.

(서울캠퍼스/비상대책위원장/배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입니다. 우선적으로 앞서서 저희 학생대표자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부총장님들과 총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나 앞서서 총장님께서 한자졸업요건 폐지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학생 대표자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성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수시 성적 조회와 관련해서 사실 학생들의 요구는 교수님들의 채점 권한이나 성적 권한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교학부총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학사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오랜만에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40명 초과인 과목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학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학기에서도 여러차례 강의 재사용 금지를 요청드렸지만 일부 수업에서 강의 재사용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불편은 저희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진행중에 12월 20일날 서버 문제로 인해 시험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수강신청 서버 오류 등을 비롯해서 각종 서버 오류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시간 강의 원칙을 적용하셨기 때문에 녹화 강의를 최소화해주시고 강의 재사용은 절

대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각종 서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가지 관련 대처 매뉴얼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때 교육 자료를 배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강의의 스트리밍이나 녹화본 등을 함께 제공을 해서 확진된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 본부에서도 생각하지 못 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 대표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저희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애학생이 많이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교학부총장님이 특별위원회에 장애학생 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장애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장을 마련해주셔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학생대표자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다른 대표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경제대학/학생회장/류동현)

우선 교내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8일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르면 약 3주간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학사를 원칙으로 한 중앙대학교 교내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학생회 공간이나 휴게 공간, 학생회 자치 공간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학교 본부 차원에서 어떠한 휴게 공간 사용 및 자치 공간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다음 대표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비상대책위원장/박상혁)

추가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선 질의에 대한 소회와 추가 질의 검사검사 말씀드리자면 행정부총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호원휴게실 중에서 경비실이랑 미화근로자 분들이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 공과대학 1층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비 노동자 분들은 남성이 다수시고, 미화 노동자 분들은 여성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두번째로는 아까 교학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전공과목 확대를 요청드리는 것은 단순히 수강여석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나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단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분야에서 대단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를 저희가 따라 가고 쫓아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앙대학교가 공과대학과 경영경제대학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사회과학분야에 커리큘럼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야 있겠지만 커리큘럼 관련 분야에 있어서 다른 단대 신경쓰는 것만큼 사회과학대학 및 소외되고 있는 다른 단과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장애학생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회과학대학에 신고가 들어온 게 제가 어느 교수님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수님들 중에서 장애학생에게 편의 지원 제공을 거부하시면서 장애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장애학생에게 답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이나 이 쪽 분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공문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중앙대학교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요.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사회에서의 조금 교육 내지는 장애인권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라벌관 관련해서요. 화장실 개선 되어서 많은 학우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다만 서라벌관 라운지에 개방형 회의공간이 많이 부족한 문제나 내지는 구형 책걸상 및 고정형 책걸상 등으로 인해서 비장애인 학우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학우분들도 특히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살펴주셔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다음 대표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대학/비상대책위원장/김다운)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아까 1부 시간에서 안성캠퍼스 부총장님께서 중앙대학교 현황 및 성과 공유하시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안성캠퍼스 학생활동 온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예술대학 서울캠퍼스가 공연영상창작학부만 서울에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안성캠퍼스 예술대학 학우들과 많이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자치 대표자들끼리도 교류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기때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온라인 사업을 학교에서 기획하고 계실 때 서울캠퍼스에 있는 예술대학 학우들과도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을까도 신경을 써주셔서 관련 사업 기획과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단절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예술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학생회장/김민철)

저희 학교는 부과대에 대한 장학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과 달리 학업 방식이 전면 비대면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바뀌었고, 이미 2월 7일부터 저희는 시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대, 부과대가 하는 일이 많이 변했는데 과대는 수업 전에 교수님들과 수업 방식,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할 지, 아니면 강의실로 오셔서 학생들과 같이 하실지 여쭙보고 또 수업시간을 따로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부과대는 매일 학교에 나와가지고 맨날 초기화되는 컴퓨터에다가 새로 줌을 깔고 카메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판서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에 맞춰서 카메라를 수시로 화면에다가 맞춰서 줌으로 듣는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조율을 하는데, 이 때 부과대가 장학금 없이 일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부과대에 대한 장학금 조항을 새로 신설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요. 또한 아까 한자 관련해서 2,3,4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6년제다 보니까 혹시 6년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몇학년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네, 다른 대표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동아리연합회/학생회장/박태윤)

먼저, 공로 표창장에 대한 요청입니다. 중앙대학교 회칙 10-5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에 제 9조 3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학위수여식에서 공로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동아리연합회 회장들이 받지 못했는 지는 모르지만 전 36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경우 졸업식때 연락이 안 갔을 뿐더러 공로표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총학생회보다 작지만 같은 중앙단위 학생회로서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에 대한 공로 표창장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 학관 문진표 폐지 요청입니다. 현재 학관은 학관 입장시에 문진표 작성 한 번, 동아리 입장시 문진표 작성으로 총 두 번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부 방역지침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 체크에서 방역패스로 바뀐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대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체크를 위해 작성하였던 문진표를 그만 작성하고, 백신패스를 위해서 현재 학관 1층에서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배부하는 쪽으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요청합니다.

(진행자)

추가로 진행할 대표자? (없으시면)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교학부총장/백준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맞진 않겠으나 학사에 관련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수시 성적 조회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교수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명 초과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될 때 강의의 질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작년부턴도 우리 비대면 강의는 실시간 줌을 대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녹화로) 이렇게 하라고 공지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도 더 확실히 교수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특히 녹화 동영상 재사용은 절대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서버 중단에 관련해서는 사실 참 이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대학 본부에서 정보통신,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버라든지 IT 관리라든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중단 문제가 없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동영상 재사용은 물론 금진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대면 강의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강의를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휴강이 되거나 한, 두 번에 한해서는 녹화동영상을 사용을 해서 보충이 가능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 교무처하고 학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걸 교무처하고 학장들만이 고민할 게 아니고 학생회하고 소통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건이 생겼을 때 같이 소통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애학생 수업권과 소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경제대학 류동현 회장인가요. 자치공간 사용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 번 좀 마련해서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박상운 회장님, 물론 전공 과목 확대가 무작정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AI, 빅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목을 좀 늘려야 하는데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런 과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과목을 전공을 한 교수님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장 안 되더라도 학과 교수님들과 학과장님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연결을 시켜드리어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편의 지원을 거부했던 사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경고까지는 아니고 그 교수님하고 협의를 한다던가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라벌관 라운지 개방 회의실 관련해서는 다른 분한테 답변을 넘기고요. 의과대학 질문 중에 한자 면제 학년, 6년제의 경우 몇 학년이 해당이 되냐, 4학년의 경우 2,3,4학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됐던 20년, 21년, 그리고 올해까지해서 그렇게 걸치는 학년이 될 것 같은데 학지팀하고 따져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누구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야할지.)

(행정부총장/이산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과대학에 방호원실과 휴게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하셨는데 지금 확인해봤는데 지난 번 공사에서 이미 분리 완료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서너 곳에 그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문을 달리 하거나 등으로 해서 공사를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제가 몇군데를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학생은 공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3관에 낙후되어있는 시설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시설처와 함께 둘러보고 파손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김교성)

네, 사회과학 대표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기획처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학대학 교수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나 커리큘럼 개선 관련 같은 것들은 사실 본부에서 개별 학과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학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장이나 학부장을 통해서 그런 공고를 하시겠지만 학생 대표들이 실제 학과의 교수님이나 학장들과 함께 전공 커리큘럼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개편 노력,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학부총장/백준기)

학생회에서 학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열린 학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회장님이 열린 학사회의에 그런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주시면 좀 더 학장님께 잘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학생처장/한중근)

동연회장이신 박태운 회장님이 질문하신 거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합회 회장단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공로표창장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예외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빠지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관에 이중으로 문진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에 맞게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의과대학에서 말씀하셨던 부과대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장학금 혜택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단과대학의 특성화 장학금이라고 해서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대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각 단과대학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화장학금에서 다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들을 각 대표들께서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자)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대표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리더스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